# 東國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

## 동국대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 극적으로 해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 지난 1월 29일부터 86일간 장기화됐던 동국대 청소노동자 파업사태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이다.

동국대와 청소노동자는 4월 24일 오후 6시 20분 본관 총장실에서 그간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이로써 청소노동자들의 86일간의 파업과 농성 및 9일간의 단식투쟁은 마무리됐다.

앞서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8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정년퇴직하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규 채용 대신 근로장학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청소노동자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청소노동자들은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갔고, 학교는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면학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합의 타결은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법회를 앞두고 이사장 자광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그동안 서로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참회하고, 어려운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회 · 화합 · 상생'을 도모하자는데 합일점이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동국대의 '직접 고용'이다. 동국대는 내년 2월 1일자로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며, 올해 9월 1일 '직접 고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동국대와

**학교 · 노조 24일 합의 체결**
**내년 2월 1일부터 직접고용**
**함께 점등법회 참석해 화해**
**"어려움 있어도 대화로 풀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동국 노조,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교는 태가비엠에 대해 4월 25일자로 용역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청소노동자들은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 쌍방이 걸었던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향후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조활동을 하기로 했다.


동국대와 청소노동자들은 4월 24일 오후 6시 20분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 직후 열린 봉축점등법회에서 총장 보광 스님이 청소노동자를 안아주고 있다.

합의 이후 동국대와 청소노동자들은 팔정도 광장에서 열린 봉축점등법회에 참석해 서로 간의 3배를 하며 화해와 상생을 다짐했다. 3배 이후에는 서로를 안아주며 그간 미안함을 달래기도 했다.

상호 3배 이후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해야 하는 데 제공을 할 수 없어 그간 학생과 교수들께 죄송했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인내하고 대화하자"고 말했다.

오종익 서울일반노조 동국대시설관리분회장은 "이 같이 급박하게 타결될 줄 몰랐다. 총장 스님과 학내 구성원께 감사드린다. 함께한 노조원 여러분도 고생 많았다"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 깨끗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자"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4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발원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평화도 기원했다.

# 종단불사추진위원회 기술자문위원 위촉

## 고건축 · 현대건축 분야 6명

조계종의 대형불사를 맡아 추진하는 종단불사추진위원회가 기술자문을 위촉하고, 세종시불교문화체험관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등 불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4월 23 · 24일 각각 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서는 고건축 분야에 △장순용 삼아성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왕직 명지대 교수 △이봉수 삼진건축사사무소 대표를, 현대건축 분야에 △승효상 이로재건축사사무소 대표 △민현식 前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민아 협동원건축사사무소 대표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외에도 세종시불교문화체험관 설계업체로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복수의 설계업체에 대한 5년간 실적과 회사 등급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 방장 진산식의 아름다운 회향

## 통도사, 법회 비용 아껴 소아암 환자 치료비 기탁

영축총림 통도사가 방장 진산식에 사용할 비용을 소아암 환자 치료비로 회향해 교계 귀감이 되고 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소아암 환자 치료비 5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지정 기탁했다. 치료비는 최근 방장으로 추대된 성파 스님의 진산식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었으나 성파 스님이 진산식을 고사하면서 자연스레 기부로 이어졌다.

이 자리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설정 스님은 "통도사가 방장스님 취임식 비용을 아껴 종단에 기여했다. 그 덕성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방장스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충실하게 쓰겠다. 기금도 기금이지만 종단의 귀감이 될 것 같다. 다음에 별도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설정 스님(가운데)과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오른쪽),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

이에 영배 스님은 "방장스님께서 추대식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시며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부로 뜻을 모았다. 총무원장스님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영배 스님은 전달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방장 추대는 10년에 1번 있는 행사이기에 추대식을 여법하게 하고 싶었지만 어른스님께서 반대의 뜻이 완강하셨다. 승가적인 정신으로 소임을 살아야 하니 사회처럼 알릴 일이 아니라고 하셨다"면서 "대신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아암 환자를 돕기로 했다"고 기금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 사성제 苦 벗어나 행복해지는 진리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신 후 49일간 선정에 드시어 깨달음을 사유하셨습니다. 이때 범천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달라"고 권청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발견한 인연 연기의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을 아시고 망설이시다가 연기법을 알기쉽게 체계화하여 사성제(四聖諦) 교설을 정리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녹야원으로 가서 도반이었던 다섯 수행자에게 사성제와 팔정도(八正道)를 설명하셨어요. 며칠 후 교진여가 가르침을 이해했을 때 부처님은 "교진여가 깨달았다! 교진여가 깨달았다"고 외쳤습니다. 기쁨의 외침이었죠. 다섯 수행자들은 모두 수다원(須陀洹)이 되어 부처님의 첫 제자 '5비구'가 되었습니다.

사성제를 설한 최초의 설법 초전법륜은 불법승 삼보가 갖추어져 불교가 탄생한 인류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를 최초로 설법한 사성제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소멸에 대한 실천적 교설입니다.

불교는 일체중생의 이고득락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성제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의 제(諦)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성제는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사의 고(苦)를 멸하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라 합니다.

*첫째 **고제(苦諦)**는 이 세상이 고(苦)라는 실상을 아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왜 고해(苦海)라고 할까요. 경전에서는 세간의 괴로움을 여덟가지(八苦)로 보고 있습니다.

생노병사의 4고(四苦)와 미운 것과 만나고(怨憎會)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愛別離)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求不得)은 괴로움입니다. 이처럼 오온(색수상행식)에 집착해서 생기는 일체의 괴로움(五蘊盛苦)을 통찰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을 설하시면서 단언하


제목 · 소멸-생성 그림 · 조향숙

**갈애 집착이 苦의 원인**
**팔정도와 함께 최초설법**
**불교교설 사성제로 집약**

셨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제행이 영구불변하길 바라면서 늙기 싫어하고 명예와 재물에 집착하니 괴롭습니다. 그 집착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자상(壽者相)입니다.

둘째 **집제(集諦)**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갈애와 집착 그리고 욕망이 원인인데 갈애는 가장 심한 번뇌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셋째 **멸제(滅諦)**는 갈애와 집착을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해탈 열반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넷째 **도제(道諦)**는 열반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수행방법으로 8정도(八正道)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성제는 12연기, 열반, 8정도를 포괄하며, 사홍서원도 사성제에 대비해서 구성됐습니다.

"뭇교설은 사성제로 집약된다" 〈중아함 권7 象跡喩經〉

사성제는 불교교리의 핵심사상입니다. 불자는 사성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8정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8정도는 다음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불기 2562(2018)년

빛고을관등회

일시 2018년 5월 12일(토) 오후 5시 장소 5·18민주광장 (아시아문화전당 앞)

점등식
일시 : 5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5.18민주광장
미륵사지 석탑 모형의 높이 20m의 한지등(燈)

어울림마당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5시
장소 : 5.18민주광장
전체 참여자와 연희단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

관등법회(봉축법회)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 5.18민주광장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법회

제등행진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7시
장소 : 5.18민주광장-광주천-금남공원-문화전당
등(燈)과 음악이 어우러진 전통등 행진

대동한마당(가수 박현빈, 강강수월래)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8시 10분
장소 : 5.18민주광장
인기가수 박현빈, 놀이패 신명이 함께 하는 난장 음악회

전통등(燈)전시회
일시 : 5월 3일(목) ~ 5월 24(목)
장소 : 광주공원 앞 광주천
광주천이 문화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을 발원하는 전문작가들의 한지등 전시

전통등(燈)전시회 작은음악회
일시 : 5월 9일(수) 오후 6시 30분,
5월 22(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광주공원 앞 광주천
전통등전시회를 기념하여 음악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음악회 개최

전통문화체험부스
일시 : 5월 12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 5.18민주공원
한지등, 연꽃등만들기 등 전래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

주최 빛고을관등회 봉행위원회 주관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나눔나무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